

# 『東醫寶鑑』 登載의 意義와 現代의 活用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 The Significance of *Dongeuibogam* Registration and Its Modern Application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e registration of *Dongeuibogam* as UNESCO's Memory of world was not only a national triumph but also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event. This event got rid of the opinions that suggested *Dongeuibogam* was a medical system practiced only un the limited area of Korea and this event signified the restoration of *Dongeuibogam`*s international and universal position. Therefore, ih is now our job to find *Dongeuibogam`*s modern applications and restore its valu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Dongeuibogam`*s registration as Memory of world from a medical history`s point of view and finding its modern applications. The author discussed significance in three parts of Past Significance, Present Significance and Future Significance. As for modern applications, the author reviewed currently used applications and considered the possible ways to restore its original value as an alternative for future medical science.

keywords : *Dongeuibogam*,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UNESCO's Memory of world

### I. 서 론

2009년 7월 말에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민족사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이것은 『동의보감』이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라는 국한된 지역에서 구사되는 한정된 의료의 체계라는 일부의 견해를 불식시키면서 그동안 폄하되어 왔던 이 책의 세계성, 보편성의 위치를 일거에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등재 이후에 이 책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동의보감』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의보감』 등재의 의의와 현대적 활용에 대해 학술적 가치와 이 책과 관련해서 청산되어야 할 요소들, 현대적 연구방향으로서 의사학적 연구에 대한 고찰 등의 순으로 고찰하였다.

### II.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취를 되짚어 보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책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학술적 성취를 논함에 몇가지로 구분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동의보감』 자체가 이루어낸 학술적 성취이다. 혼

■ 접수 ▶ 2009년 2월 18일 수정 ▶ 2009년 3월 24일 채택 ▶ 2009년 4월 13일  
■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5-5969 E-mail southkim@khu.ac.kr

히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취를 언급할 때 도교적 양생론의 의학적 응용, 유가적 성정론의 의학적 활용, 單味療法에 의한 민중의술의 정리, 체계적인 항목선정, 학과간의 논쟁의 정리 등을 꼽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동의보감』이 이루어낸 독자적인 성과들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醫學史上의 공적들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필자는 ① 자연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질병 파악에서 제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 ② 사람의 차이를 질병과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③ 精氣神과 인체의 구성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 ④ 內傷中心의 질병관의 확립을 더 집어넣고 싶다.

둘째, 『동의보감』의 국제성, 세계성과 관련한 학술적 성취이다. 이 책이 단순히 건강의 증진만을 위해 한국인의 건강코드에만 맞게 구성된 책이었다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정반대로 이 책이 간행된 후 이웃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 책을 구하여 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출간을 하면서 그 감회를 적은 서문과 발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인 凌魚는 이 책을 간행하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서문에서 기술하고 있고 일본인 源元通도 간행하면서 발문에서 이 책의 가치를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동의보감』이 보편적 醫說을 가진 의서임을 인정한 것이다.

셋째, 『동의보감』의 현재성과 관련한 학술적 성취이다. 이 책이 만일 활자체나 고전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로서의 과거의 유물로서만 남아 있고 현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학술적 가치는 논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東醫寶鑑』의 맥락의 처방활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양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의학체계를 수립코저 비교연구를 하는 그룹에서도 『동의보감』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현재적 의의는 이 책의 학술적 성취의 현재적 모습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동의보감』의 미래적 가치와 관련한 학술적 성취이다. 미래의학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과거의 유산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는 그룹에서 항상 씌먹는 레파토리 과학, 첨단, 멀티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어 왔지만 이러한 키워드만이 강조되고 중심에 놓여지게 될 때 학문적 빈곤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학문적 빈곤은 외향적 방어벽을 쌓기 위한 노력만이 중시되고 중심에 속하는 요소들이 소홀히 되는 모순이 부지불식간에 축적되면서 생겨나는 예상된 현상일 뿐이다. 『동의보감』은 미래의학으로 가기 위

한 역사적, 문화적, 의학적 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내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나아갈 때 미래의학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만일 미래의학으로 가는 과정을 마치 『동의보감』 같은 의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만 등치시켜 인식한다면 이것은 어설론 일원화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꼴만되고 말 것이다. 미래의학의 대안은 한 의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인식하는 바이다. 특히, 『동의보감』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작점으로 잡는 것은 미래의학으로 가는 빠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동의보감』의 학문적 포용력과 관련된 학술적 성취이다. 『동의보감』은 醫書로서 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민속학, 양생학, 인류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국문학 등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피부미용학, 약선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예방의학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넓은 포용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등 첨단 분야들에까지 연계될 수 있다면 『동의보감』은 더 넓은 학술적 성취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여섯째,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취에 의해 유발된 인식의 변화이다. 이에 질병관, 인체관, 자연관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의 변화란 질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니, 기존의 질병관은 질병의 원인을 내상과 외감이라는 원인 안에서만 찾았다고 본다면 이 책에서는 인간의 정기와 오장의 편차 그리고 생활방식, 환경, 체질 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에 있어 질병 발생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연에 예방하는 不治已病治未病의 의학 사상을 확실하게 구현하고자 앞부분에서부터 身形, 精, 氣, 神 등의 인체의 精氣와 五臟의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질병관의 변화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후 세계의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작용된 것이다.

인체관의 변화는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색깔의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구현되었다. 『동의보감』을 구성하고 있는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는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大篇으로서 학술적 색깔을 나타내주는 大綱이다. 이 중 질병과 관련된 「雜病」과 치료와 관련된 「湯液」, 「鍼灸」를 제외한 「內景」과 「外形」은 순전히 인체에 대한 인식을 전달해주는 兩大篇이다. 이 중 「內景篇」은 인체 내부의 생리적 운용에 대한 것들이다. 이 편에 채워져 있는

門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먼저 인체는 전체적으로 身形을 통해 파악되며 身形을 제대로 균형있게 운용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身形門에는 각종 양생의 원리와 방법, 처방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체는 精氣神이라는 三寶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三寶는 인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각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생리적 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등은 인체의 精氣神의 상태를 밖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 전체는 五臟六腑라는 기능단위에 귀속되어 조절된다. 앞서 말한 것들은 모두 「外形篇」의 소속 門들의 아이탬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外形의 각 내용들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들은 인체내부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들이기에 內景과 外形의 연관성의 파악이 바로 인체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제공하는 지식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연관의 변화도 『동의보감』의 성취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계의 변화는 인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자연계의 변화란 春夏秋冬 四時의 변화, 하루의 시간적 변화, 운기적 변화 등 시간 변화와 환경의 변화, 날씨의 변화 등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취를 연구하는데 이 책에 의해 원수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 III. 청산되어야 할 의식의 잔재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은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긍정적 요소들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삶을 외골수로 물고 갈 수도 있다. 『東醫寶鑑』이 경험한 삶도 우리 삶만큼 고통과 슬픔의 질곡이었다. 우리는 이 마당에 왜곡되어 온 『東醫寶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이 바로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굴레 가운데 하나, 『東醫寶鑑』이 중국책만 베껴 놓은 표절 서적의 대명사로 여기는 인식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 책을 문자로서만 이해하고 그 체계의 독창성과 내용의 창조성 등을 놓치고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단순히 기존 의서를 짜깁기한 것으로 끝났다면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외국에서 이 책을 구하려고 열광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東醫寶鑑』이 추구했던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 의학지식의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의

학체계를 제시하는 것이었지 중국의학을 요리조리 베껴서 표절 의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근대 이전에 『東醫寶鑑』을 중국 의서의 아류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음에도 현재 이와 같은 인식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는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한번 생각해 보직하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일제시대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과학의 탈을 쓴 일본의 한방의학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한의학의 소외로 인한 고전 의서에 대한 불신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음으로, 400년이나 된 의서에 왜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는냐는 인식이다. 아마도 『東醫寶鑑』이 400년전의 건강 코드에 맞추어진 책이기에 현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東醫寶鑑』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여기고 400년간의 한의학의 역사를 停滯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 『東醫寶鑑』이 현대 한의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400년간의 진화과정을 통해 역사 속에 內在化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은 수없는 건전한 논쟁을 통해 비판되면서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의서들과 신 연구 성과에 의해 계속 진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한의계가 이루어낸 연구 성과는 『東醫寶鑑』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계승을 통한 진화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400년전에 만들어진 이 의서에 대한 부정을 통한 과학화의 과정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400년전의 『東醫寶鑑』을 극복함으로써 현재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지난 400년간의 노력을 일거에 부정하고 최근 100여년간의 역사만을 비과학적 한의학을 일소하면서 과학적 한의학을 만들어낸 과거의 청산기로 보는 역사의 왜곡이 되는 것이다. 이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東醫寶鑑』의 비과학적 요소를 들어 이 책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태도이다.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만나는 법 등을 예로 들어 『東醫寶鑑』을 비과학적 서적으로 몰면서 이를 확대시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공중과 프로그램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시연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요소들을 검증하여 『東醫寶鑑』의 일부 내용의 비과학성을 밝혀줄지는 몰라도 이러한 태도는 매우 비학술적 태도이다. 『東醫寶鑑』에 대한 인문사회, 문화인류학적 고찰없이 과학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학술적 기준이 필요하며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무지한 단편적 과학론만으로 이와 같은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책 이외의 의서에 투명 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만나는 법 등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책의 넓은 포용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雜病篇」의 雜方門에 등장하며 雜方門을 집필하게 된 것은 전쟁, 기아, 도적 등으로 인해 산속 깊은 곳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선의 지식을 찾아서 적어놓기 위해서였다.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식들까지 포괄하고자 한 허준의 고심에 초점을 맞추어 볼 일이지 이것을 과학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이 기제된 것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책의 비과학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東醫寶鑑』의 現代的 活用方案 - 醫史學的 研究方案

『東醫寶鑑』이 간행된 이후로 이 책에 대한 각종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의학계에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약물과 질병에 대한 연구를 중심 테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역사학계에서는 이 책의 역사적인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철학계, 식품영양학계, 서지학계, 약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어 『東醫寶鑑』의 진정한 가치가 속속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기왕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醫史學的 연구가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東醫寶鑑』의 研究史이다. 이 책이 간행된 후로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로는 이 책이 출간된 1613년 이후 조선후기 전기간과 개항기, 일제시대 등에 나온 의서, 문집, 문서 등 각종 기록에 나오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포함한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 이후 발표된 각종 연구 논문들, 관련 저작, 학술잡지, 일간지, 월간지 등에 나오는 칼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東醫寶鑑』의 人物史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

많은 인물들이 기여를 하였고, 간행된 후에는 이 책과 역사적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東醫寶鑑』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로부터 직접간행에 참여한 인물, 이를 연구한 인물, 이를 활용한 인물, 이를 단순히 학습한 인물, 이를 전해준 인물 그리고 하다못해 이를 판매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관련 인물들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東醫寶鑑』의 學術史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 의외로 성과를 더욱 내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東醫寶鑑』은 醫書이지만 이 책이 학술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학술사는 이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학술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책도 학술적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이 책이 간행된 시기의 학술사적 고찰과 이후 이 책이 응용되어 구성되어진 학술적 발전사를 정리해봄직하다.

넷째, 『東醫寶鑑』의 疾病史이다. 이 책의 일부 편에는 질병의 명칭이 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바로 질병의 명칭으로서 역사기록 속에 존재하는 질병의 실체를 담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는 어떤 질환이 문헌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왔는가에 대한 나열적 연구가 많았다고 본다.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왕조실록, 문집, 일기, 학술잡지 등에 존재하는 기록까지 참고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인식과 처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東醫寶鑑』의 論爭史이다. 이 책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에서부터 이 책의 우수한 점에 대한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란들은 논쟁의 요소가 되어 論戰으로 커지기도 하였다. 각종 기록들 속에 나오는 論戰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 『東醫寶鑑』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東醫寶鑑』의 文獻史이다. 『東醫寶鑑』에는 각종 醫書들이 인용되어 있다. 중국의 고전 의서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으로부터 金元時代의 四大家類 醫書들과 明代의 綜合醫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로 가득채워져 있다. 특히,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그리고 『醫林撮要』 등의 의서들은 이 책의 대부분의 논의를 이끌어간 기간 서적들로 분류된다. 도가서적, 유가서적, 불교서적, 생활서, 농서, 역사서들도 이 책의 중심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서적들이다. 이러한 문헌들이 이 책에서 한 역할에 대해 의학적 연구가 시도됨직하다고 본다.

일곱째, 『東醫寶鑑』의 分科學史이다. 고대로부터 한의학에는 각종 분과가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궁중에는

전문분과를 설정하여 專門醫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어의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전문분과는 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醫書에 있어서도 특정 전문분과를 표방하는 책들도 다수 간행되어 후대로 갈수록 전문분과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였다. 鍼灸科, 婦人科, 大方脈, 小方脈, 外科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전문분과의 명칭으로서, 이들 명칭을 중심으로 『東醫寶鑑』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해본다면 한국한의학에서 『東醫寶鑑』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東醫寶鑑』 응용의 역사이다. 生活書, 農書, 養生書, 문집, 서간 등에서 『東醫寶鑑』을 활용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 책이 많은 파트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서적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東醫寶鑑』을 표방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행사와 사건, 작품, 학술활동 등도 이에 관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은성에 의해 만들어진 『소설 동의보감』과 드라마 “허준”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변화도 이러한 류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東醫寶鑑』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의 강구이다. 문화콘텐츠란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한다.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방송, 음악, 인터넷모바일 등이 포함된다.

## V. 『東醫寶鑑』의 지식-map

『東醫寶鑑』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체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주관적인 작업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 모험적인 면이 있다. 이 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적 인식의 틀을 제시하여 오도된 지식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지식체계에 대한 정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기왕의 연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東醫寶鑑』지식이 구성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이 책에 관한 지식체계의 구성에 대해 가설적 도해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東醫寶鑑』의 지식 구성을 분석하여 연구방법론의 기초구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구성체계를 필자는 ‘『東醫寶鑑』의 지식-map’이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이 지식-map을 순서대로 아래에 정리하고자 한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쪽의 수는 남산당 판 『原本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아이템은 □를 사용하여 표시하니 ‘[形氣之始]’가 그 예이다.

이 지식-map은 필자가 대학에서 ‘동의보감’이라는 제목의 선택과목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강의용으로 구성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다.

### 1) 氣歸丹田論

총론: 74쪽 [丹田有三]

(1) 還丹內煉: 76쪽 [還丹內煉法]

(2) 抑怒以全陰: 95쪽 [怒]

(3) 精宜秘密: 83쪽 [遺泄精屬心], 82쪽 [精宜秘密] 425쪽 [制火有方]

(4) 上下升降: 89쪽 [上氣], [秘傳降氣湯] 480쪽 [喘嗽上氣出於腎虛], 118쪽 [聲音出於腎], 330쪽 [陰陽之氣升降盈虛]

(5) 藥物論: 92쪽 [用藥法], 147쪽 [八味丸], [六味地黃丸]

(6) 臍宜溫暖: 278쪽 [臍宜溫暖]

### 2) 臟腑相通論

총론: 137쪽 [臟腑異用], [臟腑有合], [五臟通七竅]

(1) 臟腑相關: 肝과 大腸, 心과 膽, 脾와 小腸, 肺와 膀胱, 腎과 三焦.

① 肝과 大腸: 140쪽 [瀉青丸], 139쪽 [肝病證] 418쪽 [火熱有實有虛]

② 心과 膽: 116쪽 [溫膽湯], 96쪽 [驚悸]

③ 脾와 小腸: 170쪽 [小便原委], 760쪽 [三里二穴]

④ 肺와 膀胱: 171쪽 [癰閉宜吐], 179쪽 [胞痺證]

⑤ 腎과 三焦: 81쪽 [老因血衰], 87쪽 [生氣之原] 146쪽 [腎臟部位], 153쪽 [膀胱外候]

(2) 五臟間相通: 心과 肺, 肝과 腎, 肝腎과 心, 肺와 腎, 脾와 腎, 心과 腎, 脾와 肺, 肝과 脾(肝脾肺, 肝脾腎), 心과 肝, 心과 脾, 肝과 肺, 心肝肺.

- ① 心과 肺: 94쪽 [五味生神] 428쪽 [內傷有飲食傷勞倦傷] 98쪽 [健忘] 304쪽 [痿病之因] 418쪽 [審臟腑熱之部分] 262쪽 [胸膈部位]
- ② 肝과 腎: 224쪽 [眼花] 226쪽 [視一物爲兩] 303쪽 [獨活寄生湯] 450쪽 [腎氣丸](腎肝之病同一治故也) 84쪽 [巴戟丸] 176쪽 [諸淋通治] 215쪽 [駐景丸] 259쪽 [木瓜煎] 278쪽 [腎虛腰痛]
- ③ 肝腎과 心: 214쪽 [目者肝之竅] 83쪽 [遺泄精屬心] 179쪽 [莖中痒痛]
- ④ 肺와 腎: 137쪽 [臟腑有合] 118쪽 [聲音出於腎] 508쪽 [消渴由坎火衰少] 480쪽 [喘嗽上氣出於腎虛] 172쪽 [癰閉宜瀉] 324쪽 [脫肛] 173쪽 [小便不禁]
- ⑤ 脾와 腎: 436쪽 [不嗜飲食由下元陽衰] 185쪽 [腎泄] 194쪽 [飯後隨即大便] 133쪽 [喜唾痰] 118쪽 [聲音出於腎] 443쪽 [鍼灸法]
- ⑥ 心과 腎: 448쪽 [古庵心腎丸] 83쪽 [遺泄精屬心] 444쪽 [虛勞治法] 359쪽 [熱生風] 443쪽 [虛勞病源]
- ⑦ 脾와 肺: 90쪽 [人蔘膏] 170쪽 [小便原委] 211 [面上雜病] 244쪽 [視脣舌占病] 468쪽 [咳嗽諸證] 651쪽 [痰涎喘嗽]
- ⑧ 肝과 脾(肝脾肺, 肝脾腎): 102쪽 [升陽順氣湯] 117쪽 [身重嗜臥] 422쪽 [虛煩]
- ⑨ 心과 肝: 117쪽 [臥不安] 214쪽 [脈法] [目者肝之竅] 116쪽 [加味溫膽湯] 263쪽 [風心痛]
- ⑩ 心과 脾: 98쪽 [健忘] [歸脾湯] 103쪽 [神病用藥] 157쪽 [血閉] 454쪽 [二陽病] 203쪽 [滋陰健脾湯] 241쪽 [口脣屬脾] 264쪽 [脾心痛] 265쪽 [瘀血胃脘痛] 276쪽 [腹中窄狹]
- ⑪ 肝과 肺: 肝肺: 106쪽 [七情動血] 91쪽 [氣逆] 96쪽 [悲]
- ⑫ 心肝肺: 157쪽 [血閉]
- (3) 六腑間相通: 胃와 大腸, 三焦와 膀胱.
- ① 胃와 大腸: 152쪽 [大腸病治法]
- ② 三焦와 膀胱: 153쪽 [膀胱外候] 154쪽 [三焦病證] [三焦病治法]
- (4) 臟腑有合: 肝과 膽, 心과 小腸, 脾와 胃, 肺와 大腸, 腎과 膀胱. 肝과 胃.
- ① 肝과 膽: 148쪽 [膽形象] 149쪽 [膽外候] 73쪽 [人氣盛衰] 96쪽 [恐] 102쪽 [大下愈狂] 226쪽 [目不得開合] 273쪽 [清肝解鬱湯] 281쪽 [脇腋屬肝膽] 283쪽 [青皮]
- ② 心과 小腸: 157쪽 [血閉] 261쪽 [背痛]
- ③ 脾와 胃: 133쪽 [痰飲治法] 150쪽 [胃病治法] 181쪽 [大便病因]
- ④ 肺와 大腸: 196쪽 [大便不通] 152쪽 [大腸外候] 324쪽 [脫肛]
- ⑤ 腎과 膀胱: 259쪽 [項強]
- (5) 기타 臟腑間相通: 肺와 胃, 肝과 胃.
- ① 肺와 胃: 133 [痰涎難治證] 324쪽 [脫肛] 239쪽 [鼻痔]
- ② 肝과 胃: 273쪽 [男女乳疾不同]
- ③ 胃와 腎: 496쪽 [浮腫之因]
- 3) 陰陽表裏寒熱虛實論  
총론: 351쪽 [治病八要]
- (1) 陰陽: 337쪽 [診病之道]
- ① 대원칙: 343쪽 [辨陰陽二證]
- ② 감별: 298쪽 [手掌以候胃]
- ③ 脈이 중요: 290-291쪽 [診脈有法](ex) 385쪽 [傷寒陽證] [傷寒陰證] 388쪽 [傷寒陰毒] 389쪽 [傷寒陽毒]
- ④ 陰極似陽, 陽極似陰: 378쪽 [傷寒號爲大病] 390쪽 [陰極似陽] [陽極似陰]→342쪽 [脈從病反] 285쪽 [陰證發斑] 210쪽 [面戴陽證]
- ⑤ 원인에 따라: 409쪽 [中暈中熱之辨]
- ⑥ 痘를 통해 감별: 661쪽 [辨痘陰陽證]
- ⑦ 有汗無汗: 126쪽 [無汗]
- (2) 表裏: 298쪽 [手掌以候胃]
- ① 대원칙: 386쪽 [傷寒表證](太陽證), 387쪽 [傷寒裏證](陽明府證). 401쪽 [傷寒治法] 402쪽 [可汗不可汗證] 403쪽 [可下不可下證] 그러나 惡寒發熱이 반드시 表證만은 아니다. 343쪽 [惡寒惡熱] 423쪽 [惡熱惡寒]
- ② 치법: 401쪽 [傷寒治法] 192-193쪽 [治病要訣]
- ③ 熱在表, 熱入裏: 418쪽 [火熱有實有虛] 346쪽 [諸脈病證]
- ④ 邪在表, 邪在裏: 90쪽 [短氣] 210쪽 [面戴陽證]의 陽氣拂鬱在表.
- ⑤ 243쪽 [舌上生胎] 298쪽 [手掌以候胃]
- ⑥ 表證의 치료: 405쪽 [感寒及四時傷寒]

- ⑦ 在表냐 在裏냐의 구분  
- 脈: 418쪽 [火熱有實有虛]  
- 能食不能食: 397쪽 [傷寒除中證]
- ⑧ 깊이, 정도에 따라 裏는 實, 表는 虛: 90쪽 [短氣] 210쪽 [面戴陽證]
- (3) 寒熱
- ① 手足冷熱: 182쪽 [泄瀉諸證]
- ② [惡寒惡熱]: 342쪽, 423쪽.
- ③ 379쪽 [傷寒大法], 390쪽 [陽盛拒陰] [陰盛隔陽]
- ④ 417쪽 [辨五臟熱證] 이하. 648쪽 [諸熱]
- ⑤ 404쪽 [中寒證]
- ⑥ 口中氣熱: 638쪽 [搯搦癱瘓輕重] 638쪽 [急驚風] [利驚丸], 648쪽 [心熱], [風寒熱] 651쪽 [感冒風寒], 655쪽 [辨痘證]
- ⑦ 口中氣冷: 640쪽 [慢驚風], 642쪽 [慢驚風不治證] 654쪽 [小兒諸病死證]
- ⑧ 熱在上焦, 熱在下焦: 339쪽 [辨氣血痰火]
- (4) 虛實
- ① 340쪽 [五虛五實]
- ② 342쪽 [三虛三實]: 324쪽 [脫肛] 395쪽 [傷寒譫語鄭聲]
- ③ 275쪽 [腹痛有虛實], 265쪽 [心胃痛當分虛實] 501쪽 [脹滿形證](虛脹, 實脹)
- ④ 五臟의 虛實: 139쪽부터.
- ⑤ 能食不能食: 150쪽 [胃病虛實], 434쪽 [內傷病脾胃虛實], 194쪽 [大便秘結], 343쪽 [能食不能食]→381쪽 [陽明病陰陽結], 387쪽 [傷寒裏證], 418쪽 [火熱有實有虛], 433쪽 [辨口味], 397쪽 [傷寒除中證]
- ⑥ 能食不能食에 따른 치료: 506쪽 [消渴有三], 510쪽 [消渴傳變證], 519쪽 [食瘡]
- ⑦ 342쪽 [邪精虛實], 350쪽 [補瀉相兼], 351쪽 [勿傷胃氣], 354쪽 [治病先去根], 351쪽 [通則不痛], 汗은 助陽, 下는 助陰
- (5) 表裏와 虛實: 表虛, 表實, 裏虛, 裏實
- ① 351쪽 [表裏虛實藥], 661쪽 [辨痘虛實], 512쪽 [黃疸治法]
- ② 表實: 126쪽 [無汗], 356쪽 [麻黃](351쪽 [肥瘦用藥]).
- ③ 表虛: 自汗, 惡風. 183쪽 [風泄]  
- 自汗: 123쪽 [玉屏風散], 124쪽 [小建中湯]
- 127쪽 [黃芪], 737-738쪽 [桂枝]  
- 惡風: 414쪽 [風濕]
- ④ 裏虛: 661쪽 [辨痘虛實], [吐瀉], [少食], 351쪽 [表裏虛實藥], 183쪽 [虛泄], 275쪽 [腹痛有虛實], 179쪽 [飲後卽小便], 194쪽 [飯後隨卽大便], 324쪽 [脫肛], 621쪽 [鬱冒](經水下). 506쪽 [消渴形證](背寒).
- ⑤ 裏實: 便秘能食. 661쪽 [辨痘虛實], 351쪽 [表裏虛實藥], 276쪽 [腹痛宜通利], 185쪽 [食積泄], 351쪽 [通則不痛], 266쪽 [心胃痛宜下]
- (6) 表裏와 寒熱: 口中和(260쪽 [背寒], 383쪽 [少陰形證用藥])와 渴(口中乾燥)
- ① 表熱과 表寒: 陽證과 陰證의 기준. 343쪽 [辨陰陽二證], 치료법은 348쪽 [水火分治歌]
- ② 表熱:  
- 뿌리없는 熱. 433쪽 [勞倦傷], 210쪽 [面戴陽證], 434쪽 [補中益氣湯], 436쪽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  
- 斑疹, 陰證發斑, 內傷發斑.  
- 속부터 熱: 418쪽 [手按辨熱深淺], [審臟腑熱之部分], [火熱有實有虛], 419쪽 [火有上中下三焦之異], 420쪽 [積熱]
- ③ 表寒: 惡寒, 厥: 391쪽 [惡寒惡熱往來寒熱]  
- 背寒: 260쪽 [背寒](口中和, 口中乾燥 383쪽 [少陰形證用藥]). 128쪽 [留飲], 131쪽 [痰飲諸病], 506쪽 [消渴形證]  
- 口中和背惡寒: 387-388쪽 [傷寒半表半裏證](384쪽 [附子湯])
- ④ 裏寒: 口中和 260쪽 [背寒],  
- 404쪽 [中寒], 406쪽 [痲冷]
- ⑤ 裏熱: 348쪽 [水火分治歌], 352쪽 [大柴胡湯], 387쪽 [傷寒裏證], 418쪽 [火熱有實有虛]  
- 388쪽 [傷寒陽厥]: 392쪽 [傷寒戰慄], 390쪽 [陰盛隔陽], [陰極似陽]
- 4) 精神氣血論
- (1) 精氣神: 74쪽 [保養精氣神], [丹田有三]
- ① 精: 81쪽 [精爲身本]
- ② 氣: 86쪽 [氣爲衛衛於外]
- ③ 神: 94쪽 [神爲一身之主]
- (2) 氣血: 106쪽 [血爲氣配], 155쪽 [月候形色], 434쪽 [益胃升陽湯], 351쪽 [勿傷胃氣]

- (3) 精神: 81 竈 [精爲至寶], 82 竈 [五臟皆有精], 74 竈 [論上古天真], 86 竈 [氣爲精神之根蒂]
- 5) 醫易同源論
- (1) 修養養生: 75 竈 [搬運服食], 76 竈 [攝養要訣], 77 竈 [養生禁忌], 78 竈 [養生延年藥餌], 81 竈 [老人保養], 87 竈 [胎息法]
- (2) 自然과 人間: 天圓地方, 環境과 人間.
- ① 天圓地方: 72 竈 [身形藏府圖], 201 竈 [頭爲天谷以藏神]
- ② 環境과 人間: 331 竈 [四方異宜], [南北病治法] [天地不足之方], 313 竈 [濕氣侵人不覺]
- (3) 天地運氣 - 時間과 空間
- ① 時間: 217 竈 [高風雀目], 349 竈 [時禁], 259 竈 [木瓜煎], 293 竈 [四時脈], 518 竈 [瘡發有晝夜早晏之異], 74 竈 [四氣調神], 77 竈 [四時節宣]
- (4) 象과 數: 162 竈 當歸散, 75 竈 [學道無早晚], [人心合天機], 80 竈 [神枕法], 157 竈 [胞部位], 179 竈 [小便多寡], 226 竈 [老人眼昏]
- 6) 內外傷論
- (1) 內傷
- ① 428 竈 [飲食傷], [勞倦傷]
- ② 飲食傷: 429 竈 [食傷證], 441 竈 [食積類傷寒], 429 竈. [食傷治法]
- ③ 酒傷: 431 竈. 酒의 특징, 432 竈 [酒毒變爲諸病], 415 竈 [酒濕]
- ④ 勞倦傷: 433 竈 [勞倦傷], [勞倦傷治法], 435 竈. [食後昏困]: 升陽補氣湯. 補中益氣湯.
- ⑤ 虛勞: 444 竈 [五勞證], 340 竈 [五實五虛], 342 竈 [三虛三實]
- ⑥ 七情: 92 竈 [氣鬱], 95 竈 [脈法], 89 竈 [九氣]
- (2) 外感: 405 竈 [傷寒及四時傷寒], 405 竈 [外感挾內傷]
- ① 風: 360 竈 [脈法], [中氣], [食厥], [痰厥], [暑風], [酒濕], [虛中], [熱生風]
- ② 寒: 六經形證用藥. [陰證과 陽證]: 385 竈. 脈이 중요.
- ③ 暑: 409 竈 [暑病形證], 409 竈 [中喝中熱之辨], 410 竈 [夏暑宜補氣], 410 竈 [暑風], 412 竈 [注夏病]
- ④ 濕: 413 竈 [中濕], [內濕과 外濕], [肥人多濕], [風濕], [寒濕], [濕熱], 415 竈. [濕多身痛暑無身痛]
- ⑤ 燥: 416 竈. [燥因血少]
- ⑥ 火: 418 竈 [火熱有實有虛], 422 竈 [五心熱], [升陽散火湯], 424 竈 [飲酒發熱], 424 竈 [陰虛火動], 425 竈 [制火有方]
- (3) 內外傷辨
- ① 外感과 內傷의 差別: 王叔和로부터. 傷寒과 雜病의 분리.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 ② 407 竈. [傷寒相類四證]: 痰飲, 虛煩, 脚氣, 食積.
- ③ 405 竈 [外感挾內傷], [感寒及四時傷寒]: 陶氏補中益氣湯. 九味羌活湯.
- ④ 441 竈. [食積類傷寒]: 陶氏平胃散.
- (4) 傷寒雜病: 379 竈 [傷寒變熱], [傷寒大法]
- (5) 痘瘡, 溫疫, 邪祟, 瘰癧
- 7) 治療論
- (1) 虛實補瀉: 343 竈 [凡病辨有餘不足], 349 竈 [虛實補瀉], [補瀉妙訣]
- (2) 外科治療法: 癰疽, 諸瘡 등 門.
- (3) 八法: 汗吐下和溫清補消.
- (4) 十八劑, 七方十劑
- (5) 外證雖同治法迥別: 頭痛, 腰痛, 泄瀉 등.
- (6) 按摩推拿: 76 竈 [按摩導引], 211 竈 [按摩法], 304 竈 [脚氣按摩法], 579 竈 [骨折筋斷傷]
- (7) 醫案: 다수 존재.
- 8) 鍼灸處方論
- (1) 五俞穴活用
- (2) 以穴治病
- (3) 以經治病
- (4) 鍼灸處方
- (5) 阿是穴
- (6) 鍼灸醫案
- 9) 六經論
- 대원칙: 379 竈 [六經標本], 779 竈 [六經標本], 343 竈 [升降失常爲病]
- 疾患: 301 竈 [脚氣病證] (足六經), 535 竈 [癰疽當分經絡]
- 六經之形證: 360 竈 [風有中血脈中腑中臟之異], 361 竈



[加減續命湯], [養榮湯], [大秦芫湯](外無六經之形證)

약물: 206쪽 [頭痛當分六經], 380쪽 [九味羌活湯]

傳經: 379쪽 [傷寒傳經], [太陽六傳]

(1) 三陽

- ① 三陽과 三陰: 126쪽 [無汗], 443쪽 [虛勞證]
  - ② 陽證: 404쪽 [傷寒頭痛身熱便是陽證不可服熱藥]
  - ③ 下行하는 것이 順: 117쪽 [臥不安], 120쪽 [息有音]
  - ④ 三陽之會: 125쪽 [頭汗], 203쪽 [正頭痛], 209쪽 [面爲諸陽之會], 390쪽 [傷寒頭痛身疼百節痛]
  - ⑤ 약물: 206쪽 [三陽湯]
  - ⑥ 三陽熱鬱: 206쪽 [頭痛當分六經], 207쪽 [下法], 389쪽 [傷寒陽毒], 534쪽 [癰疽發病之原](三陽發病)
  - ⑦ 三陽의 病: 287쪽 [索澤證], 391쪽 [傷寒合病]
  - ⑧ 陽明胃가 三陽에 氣를 보낸다: 298쪽 [四肢不用]
  - ⑨ 三陽之筋: 362쪽 [開噤法]
  - ⑩ 太陽陽明少陽: 349쪽 [經禁], 375쪽 [破傷風之治同傷寒三法], 382쪽 [少陽證爲半表半裏]
  - ⑪ 厥證: 388쪽 [傷寒陽厥], [厥與四逆不同]
- (2) 三陰
- ① 陰證: 385쪽 [傷寒陰證], 384쪽 [四逆湯], 388쪽 [傷寒陰毒], 404쪽 [中寒證]
  - ② 足太陰脾가 三陰에 氣를 보낸다: 298쪽 [四肢不用]
  - ③ 三陰虛: 305쪽 [熱厥成痿], [鶴虱風], 321쪽 [諸痔名目], 423쪽 [陰虛惡熱], 379쪽 [傷寒大法], 382쪽 [太陰病腹痛](邪在三陰)
  - ④ 三陰과 頭痛: 390쪽 [傷寒頭痛身疼百節痛], 203쪽 [正頭痛]
  - ⑤ 肝脾腎: 422쪽 [虛煩]
  - ⑥ 太陰少陰厥陰: 274쪽 [腹痛有部分]

10) 鄉藥論

- (1) 俗方: 湯液篇 등의 내용.
- (2) 單方: 各 門別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
- (3) 鄉藥과 唐藥: 湯液篇의 표시.

11) 人間類型論

- (1) 上中下器: 72쪽 [胎孕之始], 98 [健忘]
- (2) 肥瘦黑白長短: 72쪽 [身形藏府圖], 351쪽 [肥瘦用藥], 341쪽 [肥瘦辨病候], 73쪽 [形氣定壽夭], 96쪽 [驚悸], 99쪽 [癲癇], 289쪽 [肉主肥瘦], 346쪽 [肥瘦長短異脈], 359쪽 [肥人多中風], 603쪽 [求嗣], 346쪽 [肥瘦長短異脈]
- (3) 男女老少: 273쪽 [男女乳疾不同], 307쪽 [婦人無鬚], 162쪽 [熱入血室證]
- (4) 勇怯: 341쪽 [勇怯異形]
- (5) 職業: 295쪽 [筋傷證], 171쪽 [滋腎丸]

12) 醫療文化論

- (1) 雜方
- (2) 怪疾
- (3) 邪祟

## VI. 결론

400년전에 한국인이 수천년동안 경험하고 축적하였던 의료경험과 이론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간행된 후로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 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의학을 세계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자 한다면 수천년동안 이땅에서 우리 민족의 치료를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동의보감』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힘이 실려야 할 논리라고 본다.

## VII. 참고문헌

1. 신동원 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출판사, 1999.
2. 정은아, 「허준의 『언해태산집요』에 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4.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탐구당, 1982
5. 許浚, 『原本 東醫寶鑑』, 南山堂
6.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7. 金南一,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수입후 土着化에 對한 研究」, 『國際東亞細亞傳統醫學史學術大會

- 資料集』, 韓國醫史學會, 2003.
8. 金斗鍾, 『韓國醫學史』, 탐구당, 1979
  9. 신순식, 한국한의학연구원, 1995,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상·하.
  10.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
  11.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관한 試論」,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
  12.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13. 허중안상우, 「『纂圖方論脈訣集成』 편찬과 朝鮮中期的 脈學의 成就」,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14. 조미숙, 「『及幼方』에 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15. 정순덕, 「許浚의 『診解救急方』에 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3;16(2).
  16.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17. 김홍균,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18. 李亮載, 「『東醫寶鑑』 版本考」, 한국고문서학회, 2000;9.
  19. 박경련, 「동의보감의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간행에 관한 고찰」, 『대한의사학회지』, 2000;9(2).
  20.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향문사, 1998.